

중동에서의 美-中 경쟁과 중동의 대응(다극화 정책) 및 시사점

서상현 수석연구원, 리서치센터(unisa21@posri.re.kr)

목차

1. 중동에서의 미-중 경쟁
2. 미국의 對중동 정책
3. 중국의 對중동 정책
4. 중동의 대응 방안: 다극화 정책
5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**중국의 국제 영향력 부상으로 중동에서 미국은 영향력 축소, 반면 중국은 영향력 확대 등 양국 영향력 변화**
 - 미국은 중국 영향력 확대 억지 위해 중동 전략 자산의 ‘아-태 지역’ 집중으로 중동 영향력 축소
 - 중국은 중동 최대 교역국이자 에너지 수입국으로 중동과의 경제 협력 확대
 - 2022년 러-우 전쟁으로 중동 지정학 중요성이 커지자 미국은 중동 정책 재검토
- **미국은 중동의 에너지 및 지역 안보 유지 위해 군사 협력에 중점**
 - 특히 최근 중동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 이란 핵 개발 억지를 위해 카타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사우디 등 주요 국가들에 군사기지 유지
 -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과 경제협력을 목표로 이스라엘, 인도, UAE, 미국 등 4개국은 ‘중동판 쿼드’인 ‘I2U2’를 결성
 - 2022년 7월 바이든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그동안 관계가 악화된 이스라엘 및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 중
- **중국은 자국 에너지 안보 최우선 속 중동에서의 정치, 경제 영향력 확대 중**
 -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철수, 사우디 등 친미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틈새 공약을 통해 영향력 확대
 - 중동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21년 GCC+이란과의 무역액이 2,480억 달러로 미국의 4배에 달함
 - 또한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이자 최대 투자처로 부상
- **중동은 기존의 친미 일변도에서 중국, 인도, 한국 등 아시아와 협력 강화**
 - 중동 국가들의 다극화 정책 주요인은 안보 확보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안보 공백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
 - 또한, 에너지 의존 경제의 취약성 탈피 및 산업 다각화 필요성 증대도 요인
- **중동 국가들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한-중동 산업 협력 확대 기회**
 - 2010년 이후 사우디 및 UAE는 산업 다각화 일환으로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
 - 사우디와는 스마트 인프라(네옴시티 등), 수소 등의 사업 참여 기회가, UAE와는 수소, 보건(병원 건립), 스마트 팜 등의 사업 기회 모색 필요

1. 중동에서의 미-중 경쟁

□ 미국은 중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,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동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음

○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억지를 위해 중동 전략 자산을 ‘아-태’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

- 오바마 행정부는 ‘Pivot to Asia’(아시아 중시 정책) 집중 위해 이란 핵 협정 체결, 이라크 미군 철수 등 중동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축소하였음
-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견제와 미국 개입 축소를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국 평화협정(아브라함 협정) 체결을 지원함

※ 아브라함 협정: 2020년 9월 15일 UAE, 바레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 정치, 경제협력 및 이란 견제 위함. 이후 수단과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수교

-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정책 계승 위해 이란 핵 협상 시도 및 아프간 철수 등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시도함

→ 그러나 2022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중동의 에너지 안보 등 지정학 중요성 재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정책 재검토

○ 미국의 중동 영향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4가지 핵심 이익을 위한 영향력 강화는 여전히 진행 중

- 과거 우선시되던 경제 패권보다 군사 안보 및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 억지에 중점을 둠

〈표 1. 미국의 중동 4대 핵심 이익〉

- ① 이란의 중동 영향력 억지 및 핵 개발 능력 통제
- ② 美의 중동 관문인 이스라엘과 관계 강화
- ③ 다양한 아랍 국가와 안보 동맹 및 에너지 안보 유지
- ④ 세계 최대 무기 판매 시장의 유지

□ 중국은 미국의 중동 영향력 축소 틈새를 노려 영향력 확대 시도

○ 중국은 중동 최대 교역국이자 에너지 수입국으로 경제 영향력 확대

-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(BRI)를 통해 중국과 중동 경제가 밀착하고 있으며,

중국은 중동 에너지 최대 수입국이기도 함

- 일부 중동 국가는 정치·경제 통제 방식으로 중국 모델(베이징 컨센서스) 선호
 - 중국식 모델은 ①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(집권적 통제), ② 권위주의적 국가 메커니즘, ③ 엄격하게 통제된 정치 영역이 특징임
- 중국은 미국의 아-태 봉쇄 돌파구 및 에너지 안보 위해 중동에서의 위상 강화 노력 중
 - 이를 위해 중국 역시 중동에서의 핵심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확대 중

〈표 2. 중국의 중동 4대 핵심 이익〉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자국 에너지 안보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추구 |
| ② 일대일로로 최종 기착지인 유럽의 중간 경유지 역할 |
| ③ 美의 아-태 봉쇄 돌파구 및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역할 |
| ④ 러와 함께 중동에서의 美 영향력 약화 시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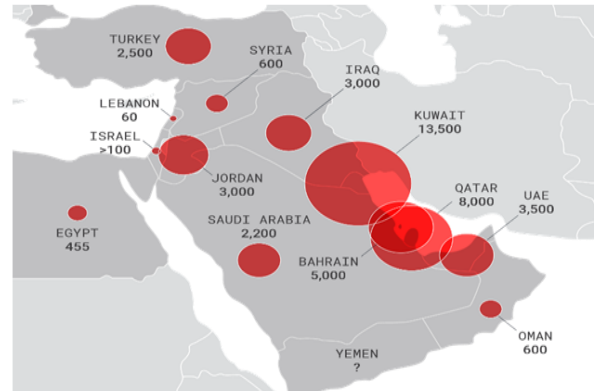
2. 미국의 對중동 정책

① 군사 안보 협력

- 미국은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 억지 위해 군사 안보 협력 집중
 -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봉쇄를 위해 인도-태평양 전략에 중동을 포함시켰으며 현재 미국은 쿠웨이트, 사우디, 오만, UAE, 바레인, 카타르 등에 군사 기지를 운영 중
 - 2021년 1월 현재 미군은 쿠웨이트에 13,500명, 카타르에 8,000명 등 주둔
 - 오바마,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라크, 바레인, 시리아 등에서 군사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중동 최대 전력 유지
- 에너지 안보 및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걸프만에 군사력을 집중
 - 카타르, 바레인에 공군 및 해군 기지 운용 중이며 사우디에 패트리엇 방어망을 구축하여 이란의 위협 대비 및 원유 해상 운송 보호

<표 3. 미국의 주요 군사 협정 및 미군 배치 현황(2021)>

국가	주요 내용
UAE	▪ 2019년 미국과 국방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
카타르	▪ 2022년 미국은 카타르를 주요 비 NATO 동맹국으로 지정
사우디	▪ 1950년대부터 사우디와 군사 훈련 협력
쿠웨이트	▪ 1991년 국방 협력 협정 체결. '04년 비 NATO 동맹국 지정
바레인	▪ 1991년 국방 협력 협정 체결. '02년 비 NATO 동맹국 지정
오만	▪ 오만에 해군 기지 건설



출처: Defense priorities, 2022.

② I2U2 결성(중동판 쿼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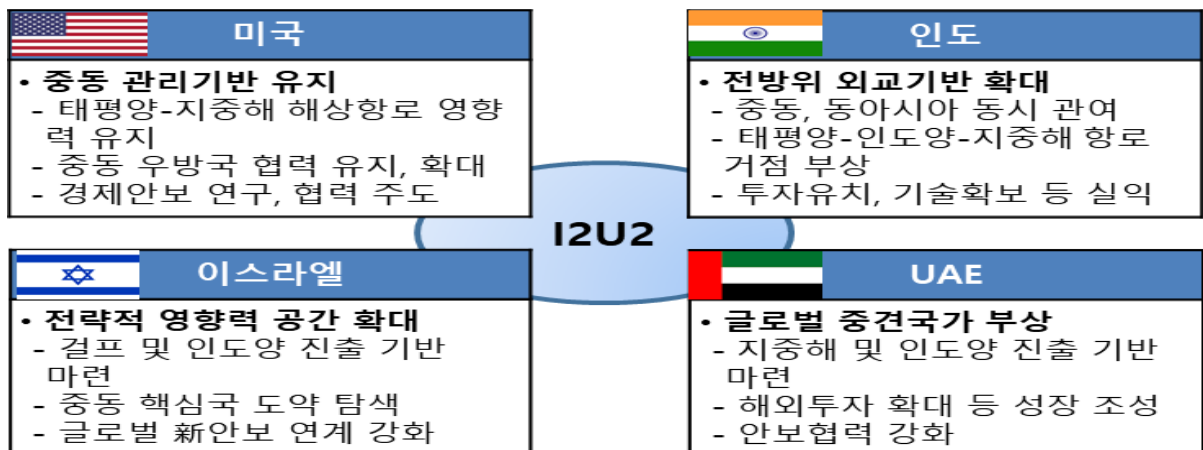
○ I2U2는 美(기독교), 인도(힌두), 이스라엘(유대), UAE(이슬람) 등 정치·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대 결성

- 2022년 7월 14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 발족하였으며 각국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하여 I2U2(Israel, India, UAE, USA)로 불림
- I2U2는 궁극적으로 ‘인도-태평양 쿼드’와 연결하여 포괄적인 중동·아시아 질서 강화를 목적으로 함

○ I2U2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과 중국 및 이란 견제

- 미래 경제 관련 협력이 핵심 목표로 정상회담에서 수자원, 에너지, 교통, 우주, 보건 의료 및 식량 안보 등 6개 협력 의제 채택
- 이 밖에 I2U2는 중동에서의 중국과 이란의 영향력을 억지하는 것으로 미국은 인도-태평양 전략에 중동을 연계시켜 효율적 중국 견제

<표 4. I2U2와 4개국 핵심 이익 관계>



- I2U2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, Bab Al Mandab(홍해) 및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 중요 지점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
 -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1/3, 원유의 약 30% 물량이 통과하며, Bab Al Mandab 해협은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의 중요한 무역로이고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무역 연결 고리임
 - 이들 지역의 확보는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및 일대일로 확장에 대응하는 인도-지중해 회랑을 형성
- I2U2 국가 중 UAE, 이스라엘, 인도는 경제협력을 위한 3국 협력 추진
 - 인도, 이스라엘, UAE-이스라엘 간 FTA 협정으로 각국의 장점 활용 협력 강화
 - 인도는 제조 강점, 인력 및 수요 시장, 이스라엘은 R&D, 기술, 양질의 인력, UAE는 자본, 그린수소 생산의 Test bed 제공 등 협력
- I2U2를 활용하여 UAE~이스라엘~인도 3國 협력 신규 프로젝트 시행 중
 -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로봇을 공동 제작하여 UAE에 설치된 태양광 단지의 패널 청소에 투입하는 프로젝트임
 - 이 프로젝트에는 이스라엘 에코피아(Ecoppia)사가 로봇 기술을 제공하며, 인도는 자국 내 제조사에서 로봇을 생산함. 또한 UAE는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UAE-인도 협력 기금 재원에서 자금을 지원함
 - 태양광 패널 로봇 청소 산업은 2025년까지 11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
- ③ 미국의 중동 관계 재설정
 -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7월 이스라엘, 사우디 등을 방문하여 이란 핵 협상으로 악화된 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함
 -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대한 공동 노력에 대해 합의함
 - 사우디에는 유가 안정을 위한 증산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, 이란 견제에 대한 협력 합의 등 관계 회복 모색
 - 바이든 중동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I2U2 정상회담을 통해 중동에서의 입지 재강화 및 중국 견제 동맹 형성
 - 중동에서 중국 부상 억지 위해 강력한 국제 연대 형성이 필요하였고 I2U2 결성을 통해 중동에서의 집합적 역량 결집을 노림

- 특히 I2U2를 QUAD, AUKUS와 연계하여 인도, 이스라엘, UAE 등과 협력 강화
※QUAD: 미·일·인도·호주 등 4자 안보 협의체. AUKUS: 미·영·호주 안보 삼각 동맹

3. 중국의 對중동 정책

① 경제협력 중점

□ 중국은 에너지 안보 최우선 속 중동에서의 경제 영향력 확대 모색

-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며 진출하고 있음
 - 이라크는 중국 원유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의 이라크 철수 이후 이라크 진출을 확대하여 2022년 상반기 기준 이라크 원유 전체 수출의 1/3을 차지함
 - 또한 바레인 제외 GCC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GCC 회원국과 경제협력을 확대. 최대 투자국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(사우디, UAE 등)이며 최근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군사 협력도 추구함
 - 중동 국가 중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과는 4,000억 달러 투자 협약 및 안보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을 확대 중
-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도 확대 증으로 중국과 GCC 국가 및 이란과의 양자 무역 총액은 2,480억 달러에 달함

<표 5. 중국과 GCC+이란의 교역(2021, U\$)>

	수출		수입	
	수출액(U\$십억)	비중(%)	수입액(U\$십억)	비중(%)
바레인	1.4	1.4%	0.4	0.3%
이란	8.3	8.7%	6.5	4.3%
쿠웨이트	4.4	4.6%	17.8	11.7%
오만	3.6	3.7%	28.6	18.8%
카타르	4	4.1%	13.2	8.7%
사우디	30.3	31.7%	57	37.5%
UAE	43.8	45.8%	28.6	19%
총합	95.7	100.0%	152	100.0%

출처: UNCTAD, 2022

② 일대일로 활용

○ 중국은 중동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

-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BRI의 중간 거점으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BRI에 참여하고 있음
- 중국-서아시아 회랑은 이란과 이라크를 거쳐 터키와 유럽으로 이어지며,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해상로는 남부 유럽과 연결
- 중국은 중동 주요국과 항만 사용 및 운송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

○ 주요 투자 대상국은 GCC로 650억 달러(UAE 260억, 사우디 206억 달러)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, 산업단지, 인프라 등 다양

- 이란도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
-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국영기업의 중동 투자는 216억 달러이며 동 기간 중국 기업의 건설 수주 계약은 924억 달러에 달함

<표 6. BRI 주요 투자 분야>

투자 분야	주요 내용
재생에너지	▪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인 UAE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 에 투자
에너지	▪ Mender 유전 개발 프로젝트(2 억 9700 만 달러 투자) ▪ 오만 국영 전기 회사에 투자
산업	▪ 오만 두쿰 산업단지에 110 억 달러 투자
인프라	▪ MENA 지역 20 개 항구에 투자(해상로 강화 일환) - 아부다비 칼리파 항구 지분 90% 취득 - 카타르 하마드 항 및 UAE 화물 터미널 항만 등

③ 군사 안보 협력

○ 최근 중동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

- 중동 국가들의 중국산 무기 수입은 증가 추세로 2016-2020년까지의 총 수입량은 2011-2015년 대비 25% 증가함
- 그러나 무기 수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,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GCC 국가 무기 판매 비중은 전체의 2% 미만이며 수출품 대부분은 무인 항공기(드론)임
- 드론은 미국이 기술 유출 우려로 판매를 제한함에 따라 중국이 중동 시장에서

우위를 점하게 되었음

〈표 7. 중동 주요국의 美-中 무기 구입 현황(2010-2021, U\$)〉

국가	미국	중국
사우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U\$190 억 - 패트리엇 미사일 F-35 전투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U\$2 억 4,500 만(1% 비중) - 2014 년부터 드론 구매 - 사우디에 드론 공장 논의
UA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U\$73 억 -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U\$1 억 6,600 만(2% 비중) - 12 대의 훈련용 및 경전투기
카타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U\$42 억 - F15, F35 등 전투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U\$1 억 1,800 만 - 단거리 탄도미사일

출처: SIPRI, 2022

○ 중국은 미국의 중동 패권 저지 위해 중·러·이란 3자 협력을 확대 중

- 3개국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영향력에 반감을 가지며 일부 사안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공조하고 있음
- 시리아 내전에는 3개국 모두 외교적으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며,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美-이란의 핵 협상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
-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 중이며 상하이협력기구(SCO) 및 BRICS 가입 추진

4. 중동의 대응: 다극화 정책

□ 중동에서 미-중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동 국가들은 기존 미국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극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

○ GCC 등 중동 국가들의 다극화 정책 주요인은 안보 확보에 있음

- 오바마 정부의 ‘Pivot to Asia’ 정책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감을 키움
- 따라서 안보 협력의 미·유럽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 확보 위해 중국과 러시아 무기 구매 등 군사 안보 협력 다각화

〈표 8. 중동 주요국의 안보 동맹 다극화 요인들〉

<p>①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안보 공약에 의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견제 위해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배치
<p>② 2015년 이란 핵 협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CC 국가들은 이란이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여기며 핵 협정에 비판적
<p>③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철수 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0년 트럼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축소 계획 발표 · '20.12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에서의 전투 역할 종료 및 자문 위치로 전환 · '21.8월 바이든 행정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
<p>④ 바이든 행정부의 '제2 오바마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이든 집권 초기 사우디와 관계 재설정 시도 · 사우디 주도의 예멘 분쟁 공세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회 · '21.1월 UAE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· 예멘 후티 반군의 테러 조직 지정 거부

○ **중동 다극화 정책의 또 다른 요인은 에너지 의존 경제의 취약성 탈피 및 산업 다각화 필요성 증대**

-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재정 취약성 탈피 및 안정적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또한 인구 증가 대응과 사회 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도 필요

○ **산업 다각화 위해 중국, 인도, 일본, 한국 등 아시아와 경제협력 강화 중**

- 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에서 사회 경제, 정치, 안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협력 추진 중이며 특히 코로나 이후 중국과 인도는 중동 무역 회복의 핵심지로 부상

□ **중동 국가들은 경제 및 사회 개혁을 위해 아시아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 'Pivot to Asia' 강화**

○ **중동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 개혁 가속화 및 외국인 투자, 해외 기업 유치 위해 경제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김**

-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혁 지속으로 아시아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
- 사우디 PIF와 카타르 투자청(QIA) 등 GCC 국부펀드의 아시아 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이외 인도와 ASEAN 국가들이 주요 수혜국

○ **중동 국가들의 Pivot to Asia 핵심 지역은 중국, 인도, 일본, 한국**

- GCC-중국 무역은 2010-2021년 906억 달러에서 1,800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준, GCC의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 및 유로 지역과의 무역을 합친 금액을 능가함
- 인도-GCC 무역도 2010-2021년 사이 750억 달러에서 1,210억 달러로 60.7% 증가하였음
- 이 밖에 사우디의 아람코와 PIF는 한국의 정유 및 건설 산업 등에 투자함
- 이러한 아시아와의 교역 증대로 2030년에는 GCC 국가들의 아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선진국을 추월할 전망
- GCC 국가 핵심 비전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다각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중동 내에서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지역 경제 통합 시도를 위한 정치적 협력도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

5. 종합 및 시사점

□ 중동 주요 국가들은 다극화 정책을 위해 다자협력 적극 추진 중

- 친미 국가인 사우디, UAE, 이스라엘 등은 경제협력을 위해 '동방정책'(Look East)을 강화 중
 - 중동에서의 미-중 경쟁 격화 속에 안보와 경제에서 실리적인 이익 확보 위함으로 미국과는 안보 협력 통해 이란 견제, 중국과는 경제협력 강화로 산업 다각화 성과 확대 추진
- 미국과 안보 협력 강화 위해 아브라함 협정과 I2U2 결성
 -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책. 특히 이스라엘과는 사이버 안보 및 무인 항공 기술 등 협력
 - I2U2는 경제협력 및 이란 견제 위해 이스라엘, 인도 등과 협력. 중동판 쿼드 구성으로 이란 군사 위협 및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. 특히 미국, 인도 가입으로 이란 견제보다 중국 견제 성격 강함
- 중국과는 경제협력 강화가 협력의 목적이지만, 미국 의존 중심에서 다자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함
 - 사우디와 이란 등은 상하이협력기구와 BRICS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

□ 중동 주요국의 'Look East' 정책으로 한국과 중동 국가들의 산업 협력 확대 진행 중

- 2010년 이후 사우디 및 UAE는 산업 다각화 일환으로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
 - 한-사우디는 2017년 제1차 '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' 개최 이후 2022년 3차 위원회 회의 개최. 이 회의에서 제조·에너지, 스마트 인프라·디지털화, 역량 강화, 보건·생명, 중소기업·투자 등 5개 분야 총 40여 개 협력 사업을 논의하였음
 - 2023년 1월 한-UAE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, 방산 등에 300억 달러 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 중
 - 특히 UAE는 한국의 핵심 협력국으로 원전에서 수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
-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사우디 및 UAE 경제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중동 진출 확대 필요
 - 최근 한-사우디 협력 사업으로 부상한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그린수소 등은 제2차 중동 붐을 가져올 전망
 - UAE와도 방산에서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, 스마트 팜 등의 분야까지 사업 협력 가능
- 이스라엘과 UAE가 중심 축인 3국 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중동 진출
 - 3국 협력 사업은 이미 인도, 요르단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 실행 중
 - 이스라엘·UAE·인도 3국 협력은 인도에서 물이 필요없는 태양광 청소 로봇 생산 및 농업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
 - 이스라엘·UAE·요르단 3국 협력은 요르단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담수를 생산하고 이를 요르단에 공급하는 사업임
-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·UAE와의 3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참여 모색이 필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 자료]

인남식, "중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", *POSRI 세미나 발표 자료*, 2022.11.8.

Adel Abdel Ghafar, "Geopolitics of the MENA Region: Challenges and Prospects", *KIEP 발표자료*. 2022.

MIKE SWEENEY, "A PLAN FOR U.S. WITHDRAWAL FROM THE MIDDLE EAST", *Defense priorities*, 2020.12.

Muhammad Ali Baig, "ANALYSING THE FIRST I2U2 SUMMIT", *ISSUE BRIEF*, 2022.7.22.

SIPRI, "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, 2021", 2022. 3.

UNCTAD, "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22", 2022.